
기자간담회 모두발언

2019. 7. 5. (금) 11:40~13:00

아펠가모 광화문점(더케이타워 B2)

금융위원회 위원장
최 종 구

금융위원회 기자단 여러분, 반갑습니다.

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간담회를 가진 것이
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.

오늘 기자단 여러분께
그 동안의 경과와 소회, 향후계획 등을 말씀드리고,
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1.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

□ 정부 출범 당시, 대내외 경제·금융 여건은
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

- 가계부채, 기업구조조정, 글로벌 불안요인 등으로
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,
핀테크·빅데이터 등 新산업 육성을 위한
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- ‘혁신성장’ 지원을 위하여 중소·벤처기업 등
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,
금융접근성 제고,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등
‘포용적 금융’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습니다.

□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
정책과제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
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.

○ 이런 맥락에서, 금융이 신뢰를 토대로
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,
포용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
「금융혁신 추진방향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□ 현재 발표한 일정에 맞춰
금융혁신 세부과제(32개)를 이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지만,
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
‘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다’는 생각이 듭니다.

① 주택시장 안정대책, DSR 도입 등 일관된 정책을 통해
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지목되어 온
가계부채 증가율*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.

* ('15말)10.9 → ('16말)11.6 → ('17말)8.1 → ('18말)5.9 → ('19.1Q)4.9

② 동산담보대출* 활성화, 성장지원펀드 조성 등을 통해
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.

* 잔액(억원): ('18.1Q)2,066→(2Q)2,048→(3Q)2,343→(4Q)4,050→('19.1Q)4,659

- 특히, 주력산업(자동차부품·조선) 활력 제고를 위해
총 4.6조원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,
「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(3년간 10조원)」을 통해
중소·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뒷받침 했습니다.

③ 법정 최고금리 인하(27.9% → 24%),
장기소액연체자(63만명) 재기 지원 등을 통해
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도 확대하였습니다.

-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확대,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
자영업자 경영부담을 경감하는 한편,
저소득층 ATM 수수료 완화, 국군 목돈마련 적금 등
생활 밀착형 포용과제에도 주력하였습니다.

④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, 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해
금융권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.

- 특히, '금융혁신지원특별법' 시행('19.4월) 이후
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
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핀테크 규제혁신, 오픈뱅킹 도입 등을 통해
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제도와 규제도
과감히 걷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.

□ 그 동안 정책을 수립 - 집행하는 과정에서
언론의 협조와 도움이 무엇보다 컸습니다.
이 자리를 빌려 출입 기자단 여러분께
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특히, 지난 2년간 언론을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고
정책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.
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,
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
2. 향후 정책방향

□ 최근 정부는 '하반기 경제정책방향'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- 투자·수출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
투자 활성화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,
경제의 포용성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,
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.
- 금융 분야도 경제활력 제고,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
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.

① 먼저,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
설비투자, 구조조정, 新산업지원 등을 위해
총 17조원 규모의 '금융 프로그램'을 가동하겠습니다.

- 산업구조 고도화(3조원), 친환경 설비투자(2.3조원) 등
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집행을 앞당기고,
- 추가로 新산업분야 대규모 자금공급(5조원),
주력산업 중소·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(2조원) 등을 통해
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을 공급하겠습니다.

② 자본시장·성장성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
'혁신금융' 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.

- 기업의 다양한 담보자산을 포괄·활용할 수 있는
'일괄담보제도' 도입을 추진하고,

-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인프라 구축,
성장지원펀드 투자집행, 기술기업 상장촉진 등을 통한
모험자본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.

- ③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,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,
서민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한
'금융포용성 강화 방안'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특히,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
민간 -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
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

- ④ 핀테크 등 금융혁신의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-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
빅데이터·AI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,
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**Big-Blur** 현상이 가속화되는
우리 금융의 미래를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.

- 이 과정에서,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
새로운 기술이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
'혁신과 포용의 균형'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.

- 조만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
샌드박스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
애로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.

○ 나아가, 핀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·확산을 위한
‘핀테크 스케일업 전략’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모험자본·금융권 공동 핀테크 투자 활성화,
인프라 수출 등 해외진출,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
아우르는 다양한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⑤ 마지막으로,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려면
금융시장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
○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한편,
비은행권 거시건전성, 부동산 익스포저 등
취약부문 점검·대응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미·중 통상마찰,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
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
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3. 마무리

□ 2년전 취업사에서, 어린 코끼리의 발을 말뚝에 묶어두면
커서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는
“코끼리의 작은 말뚝”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

○ 이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벗어나
변화를 위한 적극적 태도를 강조하는 취지였습니다.

□ 이 말을 되뇌어보면, 결국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
인식·관행·문화와 같은 보이지 않는 '말뚝'입니다.

-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,
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
변화를 장려하는 분위기,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등을
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모쪼록 기자단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
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